

2021 제27회 법무사 민사집행법 총평

*담당 : 한봉상 법무사/법박

1. 분야별 출제비율

정답지문을 기준으로 각 분야별 출제문항을 보면, 총론 5문제, 집행보조절차(재산명시) 1문제, 부동산집행(경매) 17문제, 채권집행 6문제, 보전처분 6문제가 출제되었음.

2. 기출지문과 미기출지문의 출제비율

전체 지문을 기준으로 보면 기출지문 65%, 미기출 35%의 비율로 출제되었으며, 정답 지문을 기준으로 보면 기출지문 55%, 미기출지문 45%의 비율로 출제되었음.

3. 판례·조문·이론 등의 출제비율

전체 지문을 기준으로 보면 판례 80%, 조문/예규/이론 20%의 비율로 출제되었으며, 정답 지문을 기준으로 보면 판례 70%, 조문/예규/이론 30%의 비율로 출제되었음

4. 특징

- (1) 부동산집행(경매)분야의 출제비중이 작년보다 줄었음(작년 21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올해는 17문제가 출제되었음).
- (2) 작년에 비하여 채권집행분야의 출제비중이 증가함(작년에는 3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올해는 6문제를 출제하여 보전처분과의 형평을 고려함).
- (3) 총론분야(5문항)와 보전처분분야(6문항)는 출제문항이 작년과 동일함
- (4) 기출지문과 미기출지문의 출제비율은 60:40으로 작년과 비슷함.
- (5) 매년 그렇듯이 올해도 전체 지문의 80% 정도가 판례에 관한 문제로서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됨.
- (6) 몇 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집행보조절차(재산명시) 분야에서 1문제 출제됨
- (7) 부동산집행에 관하여 배당액을 계산하는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었으나, 배당액을 계산하지 않고도 지문에서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임
- (8) 생소한 미기출판례도 있으나, 나머지 4개 지문들이 기출된 지문이거나 출제가 예상되었던 미기출판례이어서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사료됨.

5. 전년도 대비 난이도(예상)

지문이 상당히 긴 문제가 몇 개 있는 점, 다만 긴 지문의 판례가 대부분 기출판례들로 구성된 점, 미기출판례의 정답지문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난 해보다 1-2문제 정도 어려웠다고 판단됨.

6. 내년 대비 공부방향

우선 기본서를 통하여 기본이론을 철저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. 그 다음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으로 반복학습을 하여야 함. 교재는 기본서와 문제집으로 단권화하되, 각

자의 사정에 따라 부교재(판례집, 핵심정리집, 예상문제집, OX 등)를 적절히 활용하여 공부를 한다면 무난하게 고득점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.